

# 음악·연극계 활동 왕성...야외공연 풍성

2018광주·전남 문화계 결산  
〈2〉 공연

올해 공연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을 중심으로 중량급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올해는 특히 야외공연이 많았으며,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연극계가 다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슈퍼클래식 무대로 신지아 바이올린 리사이틀, 칼리히슈타인-라레도-로빈슨 트리오 초청 공연, 가이 브라운슈타인&김선숙 듀오 등의 콘서트를 선사했다. 세계적 명성의 독일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쓰리 블레로, 케이프타운 오페라 '포기와 베스' 등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무대로 인상 깊었다.

개관 27주년을 맞은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10월 공연예술축제 '그라제'를 개최했다. 대·소극장을 비롯해 야외무대, 잔디 광장에서 12일간 총 22개의 기획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이 펼쳐졌다. 광주문화회관은 또 올해 새로운 기획공연으로 마티네 콘서트 11시 클래식 산책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시립예술단체들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광주시향은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남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황호준 작곡가의 '남을 위한 행진곡 서곡', 김대성 작곡가의 '남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교



광주시립극단 연극 '명키열전' 공연 모습.

##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나서 개관 27주년 광주문예회관 12일간 축제 김원중 달거리 11년 100회 공연 넘겨

성곡 '민주'를 완성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7월 체코 프라하에서도 연주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립발레단은 세계 발레 거장이자 러시아 대표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리며 시립발레단 최초 해외 로열티를 확보한 작품으로 광주의 발레 레퍼토리를 안착시켰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은 8월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

린지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유럽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광주시립극단은 연극연출가 나상만 씨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하고, 연극 '명키열전'으로 1년 5개월의 무대 침묵을 깼다.

지난해의 부진을 떨고 일어난 연극계의 활동이 눈에 띄는 한 해였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연극 '다산 다정도 하도할사'가 제4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

회상을 수상했다. 9월부터 시작된 연극 '있다 있다 페스티벌'은 전국 실력과 극단들이 광주를 찾아 개성넘치는 무대를 보여줬다. 극단 예린소극장은 연극 '광대의 꿈-소풍'을 애플 공연으로 선보였으며, 극단 열·아리는 실험적 1인 연극 '5천원 짜리 연극-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무대에 올렸다. 아마추어 연극인들의 축제인 시민연극제도 11월 열려 7개 극단이 7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광주 대표팀인 극단 청춘이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로 은상을 수상했다.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았다. 지난 8월 27일 100번째 공연을 개최했다.

/이연수 기자

## 내년 전통문화예술 전문 TV채널 생긴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소개할 전문 TV 채널이 내년 하반기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라디오 채널만 가진 국악방송에 TV 채널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11월 개국을 목표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프로그램 구성, 시험방송 실시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신설되는 TV 채널은 국악뿐만 아니라 한식, 한옥, 전통공예 등 전통문화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전통문화예술은 악(樂)·가(歌)·무(舞)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악방송에서 라디오방송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이에 국악계에서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악 TV 채널 개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연수 기자

##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장성출신 이정기 작가

우수상 김용안·신진작가상 박두리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이정기 작가(회화·조각·43)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김용안 작가(회화·42), 신진작가상은 박두리(회화·29)가 수상한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제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1차 자료 심사로 선정된 작가는 9명이다. 김용안, 김지영, 김태형, 박두리, 박소연, 윤준영, 이경하, 이설, 이정기 작가가 선정됐다.

지난 6일 심사위원들이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보고, 작가들과 개별 면담 후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오는 1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1차 자료 심사로 선정된 작가 9명의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미술제 심사는 박남희(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육사업본부장), 유근택(작가, 성신여대 교수), 이준희(월간미술 편집장) 씨가 진행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정기 작가는 장성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올해 심사위원 세 명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거머쥔 그는 '우리들의 모든 것은 미래에 유물로 남는다'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회화와 조각작품으로 제작된 그의 '유물'은 후세에 남게 될 삶의 지표로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용안 작가는 고흥출신으로 조선대학교 순수미술학과를



'시대의 유물\_어머니를 기록하는 방법'

졸업한 후,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의 작품 안개가 낀 푸른색 유화작품의 'Hidden' 시리즈는 이상향에 대한 욕망과 삶에 대한 회의를 표현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박두리 작가는 전주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과 전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소외된 감정'을 회화와 설치작품으로 다양하게 풀어내는 작가의 작품에는 비정상적인 행위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신진작가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 초대전이 진행된다.

시상식은 12일 오후 5시./이연수 기자

## 미디어놀이터 신규 콘텐츠 깜짝 변신

판타스틱 월·빛의 폭포·퍼즐 아틀리에 등 새 단장

광주문화재단 '미디어놀이터 광주'가 6가지 체험형 콘텐츠로 새 단장을 마치고 운영 중이다.

'판타스틱 월', '빛의 폭포', '퍼즐 아틀리에', '미디어 징검다리' 등 새로운 도입된 콘텐츠들은 아이들이 직접 만지

고 체험하는 형식에 정운학, 안유자, 이이남, 손봉채, 진시영, 이조흥 등 6명의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 이미지가 결합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판타스틱 월'은 공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물로, 뛰어다니는 공룡들

을 공이나 손으로 터치해 얼음 속에 가두기도 하며, 해와 달을 터뜨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5가지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퍼즐 아틀리에'는 커다란 벽에서 그림 퍼즐을 맞춰가며 그림을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작품 설명과 함께 새로운 퍼즐이 나타나는 구조다.

'미디어 징검다리'는 이이남 작가의 '빛의 나무' 작품 아래로 징검다리화면이 펼쳐지고, 체험자가 돌을 밟고 건너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생겨나는 콘텐츠다.

미디어 놀이터 콘텐츠는 지난 9월 입찰·심사를 통해 선정된 ㈜푸름LNT(대표 유성운)에서 개발했으며, 상설 지속 운영된다.

일요일을 제외한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입장 가능. 문의 062-670-7453. /이보람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61) 331-8790	010-6791-7107

광주광역시 북구 계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월간국·관리국·사업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 720-1080-82  
 편집국: jndn@chol.com /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대표전화 061) 743-4200 / 팩스 061) 743-4202 / endlessha@hanmail.net  
 서부권본부 대표전화 061) 285-9816 / 팩스 061) 285-9818 / jmsb1000@naver.com